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가난한 농민들 경제 자립에 도움

(14) 이시돌 개척농가...맥그린치 신부, 고향 아일랜드 견본 건물에서 영감 집 지어

데스크승인 2013.04.28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이시돌 개척농가는 독특한 아치형 건물로 이국적이다.

PJ 맥그린치 신부(85)가 고향인 아일랜드의 한 신학교에 지어진 견본 건물에서 영감을 얻어 50년 전 설계를 하고 집을 지었다. 건축양식은 페르시아의 아치형 궁전인 '테쉬폰'을 모방한 것이다.

그는 황량한 중산간을 개간해 돼지와 닭, 토끼를 키우는 등 가난한 농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개척농가를 설립했다.

한림읍 금악리와 조천읍 선흘리, 제주시 오라동 등 7개 단지에 개척농가 주택이 지어졌고, 입주는 1963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3월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옥수수 사료를 지원하면서 농사 조성은 활기를 띠었다. 곡물 사료 1차분은 이시돌목장에 사용했고, 일부는 되팔아서 중산간 토지를 매입했다.

내부에 기둥이 없어 시공이 빠르고 자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집은 나무로 기본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명석과 같은 긴 가마니를 덮어 일정한 두께로 시멘트를 발랐다. 지붕이 굳어지면 가마니를 떼어냈는데 천정에는 가마니 무늬가 지금도 선명하게 찍혀 있다.

건물의 하중을 고루 분산시키는 아치형 건물은 거센 바람과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맥그린치 신부는 “당시 개척농가 100가구와 창고 등 부속건물도 이 양식으로 지었고, 300호 이상의 건물을 지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4-H클럽 청소년들과 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기둥이 없는 것이 불안해 보였던지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죠. 내가 먼저 지붕에 올라가 쿵쿵 뛰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개척농가 주택은 방 2개와 마루, 온돌 부엌, 수세식 화장실이 달려 있어 지금으로 보면 원룸형이었다.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던 1960년대 농촌에 이 같은 서구적인 주택은 흔치 않았다.

개척농가 입주민들은 우선 돼지를 길렀다. 가구 당 20두씩 분양받고 사료는 외상으로 공급 받았다. 그런데 검역이 허술하던 시절 육지에서 들여온 돼지는 운반 도중 질병에 걸렸고, 일부는 제주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해 잘 크지도 않았다.

1979년에는 돼지 값이 폭락하면서 이시돌목장은 물론 개척농가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돌투성이 땅을 개간해 고구마와 메밀, 유채 농사를 지었다. 닭도 길렀고 양잠농사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야 했다.

자립의 터전으로 출발한 개척농가 주택 중 금약리에 있는 건물은 외형이 견재하다.

맥그린치 신부는 아치형 구조가 제주의 바람을 막아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반세기가 지나도록 강한 바람에 잘 견뎠다.

지금은 유럽풍의 이국적인 모습에 반해 예비부부들의 웨딩 앨범에 오르는 명소가 됐다.

한편 1928년 아일랜드 레터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맥그린치 신부는 신학교에 진학한 후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사제로 1954년 한림공소에 부임했다.

그는 4·3과 6·25전쟁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된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됐다.

목축업이 발달한 아일랜드의 축산기술을 널리 보급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1961년 성이시돌목장에 이어 1962년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했다. 면양과 젖소를 보급하고 우유와 치즈를 생산하는 등 선진 축산업의 기반을 다져 놓았다.

도내 최초의 기업형 목장인 성이시돌목장은 아일랜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주의 딱한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모금한 돈으로 한림읍 금악리 돌밭 3000평(1만㎡)을 사들인 것이 시초가 됐다.

지금은 793만㎡의 광활한 면적에 젖소 900마리와 한우 350마리, 경주마 1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곳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요양원과 말기 암 환자를 수용하는 성이시돌복지의원 운영 등 복지사업에 환원되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사진=개척농가 집 모습)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성이시돌목장 맞은편에 있는 개척농가 주택 전경. '테쉬폰'이라 불리는 이 건물은 맥그린치 신부가 고향인 아일랜드에 있던 건본 건물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것이다.

(사진 개척농가 신축 장면) 1961년 성이시돌목장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치형 건물을 신축하는 장면. 이 같은 모델은 1963년 개척농가 입주자를 위한 주택용으로 지어졌다.

(사진 개척농가 내부 지붕) 개척농가 집 공사는 나무로 기초를 세운 후 가마니를 덮어 시멘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랐다. 지붕에는 가마니를 떼어내면서 생긴 무늬가 찍혀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